

1. Space21 캠퍼스종합개발사업 진행현황

가. 인허가 관련 사항

1)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8월 25일]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심의)

가) 8월 19일 본안(1차)심의 : 보완 후 재심의

나) 9월 16일 2차 심의 접수[9월 23일 재심의 예정]

3) 종합체육관 건축허가

가) 실험연구(A)동 사용승인 접수 위해 종합체육관 건축허가 취하[8월 18일]

※ 실험연구(A)동 사용승인[8월 25일]

나) 종합체육관 건축허가 접수예정[9월 17일]

다) 종합체육관 건축허가 승인[9월 30일~ 10월 첫째 주 예정]

나. 설계관련 사항

1) 종합체육관

가) 실시설계도서 1차 검토 완료[8월 29일]

나) 2차 수정도서 수령[9월 5일 예정]

2) 공과대학 : 협의 중

3) 외국어대학 : 디자인 작업 중

2. Space21 캠퍼스종합개발사업 향후 추진일정

가. 종합체육관 입찰공고[9월 23일 예정]

나. 종합체육관 현장설명[9월 29일 예정]

다. 종합체육관 입찰[10월 20일 ~ 24일 예정]

라. 종합체육관 감리업체 선정[종합체육관 진행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

3. 질의응답

[회의자료 설명]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심의) 관련

- 재심의 요청사유 : 기존 심의안(2010년 11월) 신설 우회도로 설치(안)에 비해 교통측면에서 현저히 후퇴하는 안으로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금회안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안을 제시해야 심의 가능하다는 것이 심의 위원회 입장임/ 심의위원회에서 우회도로 폐지에 대한 변경승인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 심의통과가 어려운 상황임

- 대응방안 : 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을 일부 반영한 단기계획안(현재 교내도로 보완책)과 장기계획안

(신설우회도로 일부 변경) 수립하여 승인 후 향후 마스터플랜 계획변경에 따라 교통관련 변경심의 요청

[Space21 캠퍼스종합개발사업]

(Q1) 회의준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회의안건에 대해 사전에 논의되길 희망하며, 상세 내용이 없어 이해하기 난해함/ 디자인관련 의사결정은 대표건축가 단독으로 결정하는지 구성원 의견도 반영되는 것인지 질의

(A1) 회의자료 및 논의내용에 대해 회의록 공유, 유선통화 등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다고 사료됨/ 공개 가능한 자료는 학생위원들에서 배부하거나 요청 시 열람하고 있음/ 디자인안은 총장님과 대표건축가의 소통 하에 진행하고 있으나, 외관디자인에 따른 기능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함. 하지만 단순히 디자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됨/ 외국어대학관의 경우 외관이 기능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안은 아니라고 사료됨

(Q2) 외관 디자인 자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며, 일부 구성원들은 외관에 치우친 나머지 제한된 예산 내에서 내실이 부족하게 될까 우려하는 상황임/ 일례로 예술디자인 대학관의 경우 작업환경이 면밀히 고려하지 않아 현재 환기 등의 문제가 있음/ 외국어대학관도 단과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A2) 증축되는 외국어대학관 공간은 교수연구실이 주로 배치되며, 기존 외국어대학관의 공간배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Q3) 캠퍼스종합개발사업 관련 대표성을 가진 본 회의체에서 충분한 자료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함

(A3) 여타 회의체와 마찬가지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회의 중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 금일 토론 내용은 공과대학관의 디자인관련 문제가 주요사안이며, 종합체육관 관련된 인허가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지 안내하는 자리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람/ 기타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요청해 주시기 바람

(Q4) 공과대학 학장 면담 내용 질의

(A4) 공과대학 구성원 의견을 다시 수렴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는 내용을 들었고, 공과대학 학장님이 공과대학 학생회장에게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함/ 지난 6월 중순 진행한 공과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가 당시 시험기간이라 대대적인 총투표는 불가능 했음. 그러나 확대운영위원회, 과학생회, 전공장, 동아리 등을 통해 학생임원, 일반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 의견으로 도출된 결과가 2안(범건축 설계안)이었음/ 현 상황에서 지난 6월 결과가 대표들만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의견 재수렴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또한 구성원 의견으로 도출된 2안이 아닌 '1+3'안 및 '3안'이 재검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대 구성원 의견 재수렴 절차가 정말 필요한지 궁금함/ 공과대학은 의견 재수렴 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에 무게가 실려 진행되길 바라고 있음

(Q5) 공과대학 내에서는 새로운 의견수렴을 할 의향은 있는지 질의

(A5) 만일 적법한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추진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지난번처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견이 묵살된다면 시행하지 않겠음

(Q6) ‘1+3’안 관련 질의

(A6) 해당안은 1안(한울건축 설계안)에 기초하여 거기에 고전적인 의미를 더하는 설계안이었음/ 외관 디자인 안이 빨리 결정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의 건물이 수십년을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임. 또한, 내부 기능적 측면이 아닌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캠퍼스 전체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통일 시키자는 취지임/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차원이 아니라 개선안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기 바람

(Q7) 외관 디자인은 총장님과 대표건축가 두분이 결정하는 부분이라면 굳이 구성원 의견을 왜 묻는지 의문임

(A7) 3안에 대한 우리대학 건축학과 교수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내부 공간에 대한 부분은 설계 변경 가능하다는 대표건축가 답변에도 불구하고 외관에 대한 건축학과 교수님들의 문제점 지적이 많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었음/ 그 후 공과대학 구성원 의견이 어떤지 의견을 수렴해보라는 총장님 지시사항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되었음/ 공과대학 구성원들은 디자인 자체의 문제보다 조속한 사업 시행을 갈구 한다고 알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안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고 사료됨/ 1,2안의 경우 경희대학 건축학과 교수님들의 자문이나 의견이 반영된 안이지만, 3안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발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어 소통과정을 거치게 된 이유도 있음

(Q8) 현재 공과대학 학생 입장에 대해 질의

(A8) 지난번 투표시 2,3 두 개의 안에 대한 의견만 수렴하면서 수년에 걸쳐 친숙한 2안에 대해 선호도가 매우 높았으며, 3안은 구성원들에게 생소한 안으로 지지가 없었다고 사료됨/ 또한 외형상 공과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청단의 이미지가 반영되지 않았고 기능적 문제에 의해 3안이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함

(Q9) 공과대학 학생들은 전임 학생회 때부터 2안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건축학과 교수님들은 1안을 선호하는 상황임

(A9) 1안에서 예산문제로 규모 조정된 안이 2안으로써 동일한 설계안이라고 알고 있었음/ 공과대학 내부적으로는 지난번 투표 시 8개 학과 중 7개 학과의 학생, 교수 모두 2안으로 합의안 도출이 완료되었으나 다시 논의하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 2안으로 진행이 안 될 경우 더 이상의 의견 수렴 과정은 필요 없다고 판단함/ 재투표를 하더라도 2안에서 3안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함

(Q10) 서울캠퍼스 건설사업의 경우 외관 디자인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은 없이 내부 공간에 대한 논의과정만 거침/ 종합체육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는 없었음/ 공과대학관 디자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건축학과 교수님들의 문제제기 때문이 아니었는지 질의

(A10) 공과대학 디자인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의 발단은 모르겠으나 학생들에게도 이슈가 됐던 이유는 국제부총장실에서 내부 기능은 배제하고 외부 디자인에 대한 투표를 지시했었기 때문임/ 구성원들이 신축 공학관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간에 대한 부족 때문이지 그 이전까지는 외관 디자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Q11) 일부 학생들은 예술디자인대학관의 사례처럼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우려하며, 우리 대학 건물을 내부 교수가 설계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함

(A11) 경희대학 내부 교수님이 진행했던 설계안에 대해 더 발전된 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총장님 의중이라 사료됨

(Q12) 외관 디자인은 총장님 단독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인지 질의

(A12)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과대학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함/ 금회 재투표 시행할 경우 결정되는 안으로 공과대학관 설계안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재투표 하지 않겠다는 공과대학 입장을 총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음/ 가급적 빨리 부총장 주재로 공과대학 대표간 별도로 회의 자리를 만들겠음

[2014. 9. 16.(화) 13:00 개최하기로 함]

(Q13) 9월 17일 종합체육관 건축허가 접수 시에 다른 건물도 접수 가능한지 질의

(A13) 시공도면이 나와야 접수가능하기 때문에 동시 접수 불가함/ 디자인이 결정되고 3개월 이상 기계설비, 전기 설비 등 시스템 분야의 설계기간이 소요 됨/ 각 층 평면과 볼륨이 나와야 도시계획시설도 접수 가능하지만 보름 안에 결정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함

(Q14) 만일 재투표를 하게 된다면 몇 개의 안을 가지고 투표하게 되는지 질의

(A14) 앞서 말한 공과대학만의 회의 자리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투표를 및 지지율 얼마 이상일 경우 가결이라는 등의 세부적인 투표기준을 공과대학 학생회장님이 정리해 제시해 주시기 바람

(Q15) 외국어대학 진행상황 및 행정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직 증축안으로 추진했던 실들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질의

(A15) 신축건물은 기존 평면안 유지하고 개보수 건물에 대한 평면은 기존안을 일부 확인할 필요가 있어 행정실에 요청한 상황임/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변동은 없을 예정임/ 향후 실배치와 관련한 외국어대학 업무연락 송부 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명기하도록 하겠음

(Q16) 생명과학대학 평면 배치안 질의

(A16) 리모델링 건물의 경우 정해진 면적 내에서 해당 단과대학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건설사업단에 접수되기 전에 학생들과 소통된 안이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함/ 개보수 건물의 경우 실구획 관련 건은 민감한 사안으로 행정실에 요청하여 학생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음/ 건설사업단은 접수한 공간조정안 중 기술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Q17) 동서의학대학관 진행상황 질의

(A17)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완료되었으며, 건물 길이를 30cm 정도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동서의학과

구성원과 협의 완료됨/ 공과대학관, 외국어대학관 등과 함께 인허가 진행할 예정임

(Q18) 국제대학관 증축안 진행상황, 사업추진 주체 질의

(A18) 국제대학에서 상신한 보고서가 결재 진행 중임/ Space21 캠퍼스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아니지만 적절한 타이밍이 된다면 함께 진행할 계획임/ 증축되는 공간은 교수연구실 및 대형 홀 중심이며, 현재 건물에서 이전하는 공간은 학생자치공간, 강의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세부적으로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국제대학 진행상황 관련 기타 궁금한 내용은 행정실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람

(Q19) 학생들에게 Space21 캠퍼스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별도의 착공행사(선포식) 개최 제안함/ 사업추진에 대한 대학의 의지를 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A19) 종합체육관 허가 완료 및 시공업체 선정 후 착공식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행사는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음

(Q20) 응용과학대학 등 여타 단과대학 공간문제가 포함된 대학 전체건물 사용계획에 대한 논의 진행상황 질의

(A20) 양 캠퍼스 모두 관련 거버넌스가 현재 결재 진행중이며, 결재 완료 후 킥오프 할 계획임/ 여러 가지 파트 중 기존건물 공간조정 분야 가동 시 학생위원회 참여 가능하도록 하겠음/ 공간조정위원회에서 기존건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동서의학대학원 이전 시 전자정보대학관 및 국제경영대학관에서 발생하는 공간 문제 등을 공간조정위원회에서 정리할 계획임

(Q21) 현재 응용과학대학은 전자정보대학관 및 공과대학관에 총 4개 학과가 나뉘어져 있는 실정임

(A21) 기존 공간 조정을 통해 한번에 4개학과 모두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동서의학대학원 이전 및 공과대학관 신축 후 전자정보대학관 및 공과대학관에 필요한 공간을 추가로 배정받는 쪽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임

(Q22) 현재 신입생도 받지 않는 동서의학대학이 대학원생들만을 위해 건물이 신축될 계획이라는 점에 의문임/ 동서의학과 및 응용과학대학이 대학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 확인 요청

(A22) 동서의학대학관은 약 1,000평 신축 규모로써 작은 공간을 해소하면서 그에 따라 전자정보대학관 등 다른 건물들에 대한 공간조정이 가능하지만, 큰 규모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금주 목요일(9월 4일)까지 요청한 두 개 대학의 전용면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질의사항 답변]

- 응용과학대학 : 6,088㎡(약 1,842평)
- 동서의학과/동서의학대학원 : 3,268㎡(약 988평)

(Q23) 대학의 의지를 구성원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착공식(선포식) 개최 여부 재질의

(A23) 종합체육관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실질적인 착공식을 11월 중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향후 입찰일정은 대학 홈페이지 입찰공고 메뉴에 종합체육관 시공업체 선정관련 내용 확인이

건물 사용현황(전용면적)			
			단위: m²
건물명	응용과학대학	동서의과학과	비 고
공과대학관	1,631		
멀티미디어교육관	835		
국제경영대학관	49	2,179	
전자정보대학관	2,837	1,089	
가설연구동	459		실험연구동(A) 이전 예정
실험연구동	61		
애지원	216		
합 계	6,088	3,268	

가능함

<회의종료>